

안동 분강서원의 창원 및 造營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Construction Work of Bungang Seowon

이 호 열*

Lee, Ho-Yeol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Abstract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construction process, craftsmanship, architectural economy of Bungang Seowon through the Changwon Ilgi(diary). The Bungang Seowon, which was built in the early 18th century, was initially built as a shrine, but was later completed as a seowon upon the decision of the scholars. It was the descendants of Nongam and the Hyanggyo, Seowon, and the government offices that provided economic, human and material support to the construction of Seowon. The small building of Bungang Seowon was run by a civilian carpenter, while the large building was run by a monk carpenter. The mobilization of the building workers was done by local scholars assigning the number of workers needed for each village.

주제어 : 분강서원, 창원일기, 서원, 조영

Keywords : Bungang Seowon, Changwon Ilgi, Building Construc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창원일기(創院日記)』를 통해 안동 분강서원(汾江書院)의 설립과정과 조영 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18세기 초 경상도 예안현(현 안동군 예안면)에 분강서원을 건립할 때 작성한 창원일기를 통해 서원의 건립과정·조영조직·건축 장인과 역부(役夫)의 동원·건축비 조달방식 등에 대해 고찰했다. 선행연구에서 조선시대 서원의 배치와 공간구성, 건축특성 등은 상당히 규명되었으나 서원의 영건일기를 분석하여 설립 및 조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배창현이 『창원일기』의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 안동지역 영당(影堂)의 건립 성격을 고찰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¹⁾. 서원건축에 관한 문헌 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서원의 창원 과정을 기록한 문헌자료의 발굴과 연구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련자료 발굴과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조선후기 서원건축사 연구의 폭과 사야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농암증가에서 소장하고 있던 『창원일기(創院日記)』를 통해 유학자 농암 이현보를 주벽(主壁)으로 모신 분강서원의 설립과정 및 장인(匠人)과 역부의 동원 그리고 지역 관아와 지방민의 지원체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조선시대 경상도 예안현에 설립되었던 분강서원의 사례를 통해 조선후기 서원의 건립과정, 장인과 역부의 동원 및 관아와 향교·서원간의 지원체계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선시대 서원의 설립과정 및 조영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의의는 그간 미흡했던 조선시대 서원의 건축배경과 설립 및 건축생산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혀 서원건축사를 보완하는데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samlhy@pnu.ac.kr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배창현·전봉희, 「문헌자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안동지역 영당 건립의 성격」,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97~102쪽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인 『창원일기』는 18세기 초에 분강서원을 창원할 때 있었던 일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사찬

8 논문

(私撰) 영건일기(營建日記)에 해당된다. 1699년 6월부터 1703년 1월 4일까지 이루어진 분강서원의 창원 및 조영과정의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서원이 남설되기 시작하던 18세기 초 지방 서원의 창원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일기의 영건기록을 통해 건축자재와 영조부조(營造扶助)의 조달·건축 장인과 역부의 동원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인 창원일기는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 있는 농암증가에서 소장해 오다가 보관의 어려움 등으로 지금은 한국국학진흥원이 기탁 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에 올려놓은 『창원일기』²⁾ 원문을 국역한 다음 분강서원 설립과 건축조영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고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즉 『창원일기』의 기사를 창원 과정과 자재의 수급, 장인과 역부의 동원, 조영조직 구성과 감역 등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분강서원의 설립 및 조영 과정은 물론 건축 생산에 필수적인 건축자재와 건축비의 조달 및 장인과 역부의 동원방식에 보이는 제 특성을 규명했다.

2. 창원일기와 농암 이 현보

2-1. 창원일기의 내용과 사료적 가치

연구 대상인 『창원일기(22×25cm)』는 총23쪽 분량의 서원 영건일기이다. 이 일기는 농암 이 현보 종택에서 보관해 오던 필사본 형식의 고문서로, 저자는 확실하지 않다. 일기의 표지에는 ‘創院日記’라 쓰여 있고, 속지에는 간략히 ‘日記’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문헌은 조영조직의 유사(有司)가 창원과정·건축공사·영조부조·역부동원·감역·방문객 등을 기록하기 위해 한지에 한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일기에는 1699년 6월 2일에 농암 자손들이 애일당³⁾에 모여 정사 건립을 결의했던 문중회의부터 창원의 전(全)과정이 기록되어 있어 서원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창원일기』에는 지사(地師) 임기상을 불러 터의 좌향을 살피게 한 것을 비롯 사당과 강당·신문·전사청 등의 건축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서원을 건립할 때 내외 자손 및 각처로 부터 받은 영조

부조 및 장인과 역부의 동원, 감역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밖에 서원 설립과정과 조영조직의 구성은 물론 도감(都監)과 수임(首任)·유사 등의 선임 방식도 자세하게 적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영조부조를 통한 건축비 조달, 주벽의 위패를 사당에 봉안하는 고유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서원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2-2. 농암 이 현보와 안동 분강서원

1) 농암 이현보⁴⁾

분강서원의 주벽 농암 이현보⁵⁾는 조선전기 유학자로 1467년(세조13)에 경상도 예안현 분천리⁶⁾에서 출생했다. 부는 인제현감을 지낸 이흠, 어머니는 안동권씨 권점의 딸이다. 농암은 어려서는 학문에 전념하지 않았다. 이를 걱정한 아버지가 18세 되던 해 임지(任地) 진보로 데려갔으며 19세 때 향교에 들어간 뒤 학문에 전력했다. 1495년(연산군 1) 사마시에 합격하여 벼슬에 나아갔으나 1502년 연산군에게 간언한 일로 미움을 사 안동부 안기역으로 귀양 갔다. 그 뒤 영천군수·밀양부사를 역임하며 선정을 한 후 1542년(중종 37) 봄에 체직했다. 그 후 여러 번 조정에서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했다. 그는 산수를 사랑하여 고향 분천에 애일당(愛日堂, 그림.2)을 짓고, 스스로 호를 농암(龔巖)이라 했다. 1555년 6월에 89세로 별세했으며, 문집으로 『농암집』이 있다. 1557년에 효절(孝節)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1566년에 신도비를 세우고 향현사(鄉賢祠)를 지어 제향했다. 1702년(숙종 28)에 분강서원 창원 후 위패를 향현사에서 옮겨 봉안했다⁷⁾.

2) 분강서원

농암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1613년(광해군 5)에 사림의 공의로 향현사를 지어 제향한 것이 분강서원의 시초이다. 그 후 1702년(숙종 28)에 지금의 안동시 예안면 분천리에 사당과 강당 등을 갖춘 분강서원(그림.1 참조)을 짓고 농암을 주벽으로 모셨으나 서원은 1868년(고종 5)의 서원철폐령 때 훼철되었다. 그 후 1967년에 서원을 복설했으나 안동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해 1975년에 서원을 지금의 안동시 도산면

4) 이현보, 『국역 국조인물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네이버 지식백과 국역 국조인물고에서 재인용)

5) 본관은 永川. 자는 여경(餘慶)·비중(裴仲), 호는 농암·소주도병(燒酒陶甁)·설빈옹(雪鬢翁)

6) 현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7) 이현보(李賢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03824&cid=51934&goryId=54432>)

2) 이 연구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에서 검색한 『창원일기』 원문자료를 사용했다. (<http://diary.ugyo.net/>)

3) 농암 이현보가 1512년에 지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별당이다. 그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산수와 전원을 벗 삼아 江湖歌道の 시가를 읊조리던 곳으로,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612번지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애일당(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운곡리 163번지로 다시 이 건했다.

현 분강서원에는 승덕사·홍교당·극복재·경서재·유도문 및 주소(廚所)와 협문 등이 남아있다. 농암 이 현보의 위패가 있는 승덕사는 전퇴를 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장허수장 맞배집이다. 강당인 홍교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좌측에 정면 1칸의 온돌방, 그 오른편에 정면 3칸의 넓은 대청을 들인 형태이다. 강당 앞에 동재인 극복재와 서재인 경서재가 마주 보며 배치되어 있다. 동재는 정면 3칸, 측면 1.5칸 규모의 맞배집이고,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서재에는 마루 없이 온돌방만 있다. 외신문에 해당하는 유도문은 단칸의 사주문 형식이고, 향사는 매년 3월 上巳日에 지내고 있다.



그림 1. 광여도의 예안현 지도 (19C전반, 古4790-58, 고딕체 지명: 필자 삽입), 규격: 36.8×28.6cm, 19C에 만든 전국 군현지도집



그림 2. 애일당 (경북유형문화재 제34호, 사진: 문화재청)

3. 창원 과정과 건축

3-1. 분강서원 창원과정

분강서원의 창원에는 약 3년 4개월이 소요되었다. 1699년 6월 2일 농암의 친손들이 애일당(그림.2)에 모

여 그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한 정사(精舍)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역을 진행하여 향현사에 있던 농암의 위패를 1702년 10월 8일 분강서원 사당으로 이안(移安)하기까지 약 3년 4개월이 걸렸다.(표.1) 서원의 창원은 농암 이 현보의 자손(문중원)들이 1699년 6월 2일 애일당에서 문중회의를 열어 선조(농암)의 정사⁸⁾를 건립하기로 결의하면서⁹⁾ 시작되었다. 이날의 문중원들은 정사 건립에 찬동하였으며, 이틀 후 이장휘 등이 영천이씨 도곡재사(道谷齋舍)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문중원에게 정사 건립계획을 알리고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서¹⁰⁾ 창원(創院)은 본격화되었다. 이날 작성한 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삼가 바라 건데 문중원(門中員)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호응하여 영조부조를 기한 내 거두어 본소(本所)로 보내주어 대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伏願僉宗同聲相應 趁期收送于本所 使大事期於必成 千萬幸甚..., 『창원일기』, 1699.6.2)

위와 같은 내용의 통문을 문중원들에게 보내 농암의 정사 건립계획을 알리고, 건립비용은 영조부조 형식으로 분담했다¹¹⁾. 이어 농암의 친손(親孫)으로 정사 건립을 추진할 조영조직을 구성했다. 초반의 조영조직은 도감(3명)과 유사(3명) 및 번와 유사(5명), 재목 유사(13명)¹²⁾로 구성되었으나 후에 영조부조를 모집하는 수합유사 및 철물유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정사 건립을 주도했던 조영조직에서는 문중원들로 부터 받은 영조부조를 건축경제의 기초로 농암이 지은 별당인 애일당 남쪽 황응상의 옛 집 터에 정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공역에 착수했다. 먼저 지사(地師) 임기상에게 황응상의 옛 집터를 보이고 길흉 및 좌향을 살피게 한바 건좌손향(乾坐巽向)의 터라고 말했다.¹³⁾ 이에 따라

8) 정사라 했으나 16C말에 창건된 겸암정사(1564년 창건), 원지정사(16C말 창건) 등과 달리 사당과 강당을 갖춘 影堂을 건립하려고 했다. 이는 애일당 언덕에 정사를 하나 세워 옛 영당의 제도를 본받고자 한 지가 오래 되었다고 한테서 알 수 있다. (...欲於堂畔圖建一精舍 以倣古者影堂之制者蓋久矣... 『창원일기』, 1699. 7. 11)

9) 門中會于愛日堂 始發精舍創建之議 詢謀僉同... 『창원일기』, 1699. 6. 2

10) ...越二日李章徽 李章熙 李明夏 李東弼 自沙川齋舍 轉宿于道谷齋舍 仍發文通告門中 又分定任員...分定之數 則每員錢文一兩 米牟一斗 麴生一圓 而較家形勢... 『창원일기』, 1699. 6. 2

11) 문중원 1인당 돈 1냥, 쌀보리 1말(斗), 술 1동이(圓)을 내되 형편에 따라 조금 더하고 덜함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 가을걷이를 기다려 추가로 부담할 일이 있을 것. 『창원일기』, 1699. 6. 2

12) ...任員都監李章熙李明夏李百業 有司李東弼李基祥李聲長 燔瓦李汝弼李馥李基伯李必榮李祇 材木李夢弼李命弼李瀟李聲溢李重榮 李彦榮李璠李珣李又榮李聲重李聲大李璣李汝栢也... 『창원일기』, 1699. 6. 2

13) ...邀請地師任至相 地于愛日堂南 乃黃應祥古基也 坐向則乾巽也.

정사(후에 분강서원)를 지었다면 사당과 강당 등의 건물은 북서쪽(乾方)을 등지고 남동향(巽方)했을 것이다.

아울러 조영조직에서는 내외 자손과 외지 거주 문중원은 물론 영천이씨 각 지파에 통문을 보내 정사 건립계획을 통지하고 영조부조 및 지원을 당부했다.¹⁴⁾ 이는 농암 내외손(內外孫)의 인적, 물적 지원 및 협조가 있어야 지역 사립은 물론 서원·향교·관아로부터 지원을 받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표 1. 분강서원 창원 과정

연월일	내용
1699. 6. 2	문중회의, 精舍 창건 논의 결정 및 부조, 조영조직 구성
1699. 7. 1	귀목정에서 제회 열어 각 支派에 통문 보내기로 결정
1699. 7. 2	내외손 회의, 외지 문중원, 외손에게 통문 발송
1699. 7. 9	회의(애일당),오천 거주 외손에게 통문 발송
1699. 7. 11	내외손 회의, 地師 任기상을 데려와 애일당 남쪽 황용상의 옛 집터를 보이고 거기에 정사를 짓기로 결정
1699. 7. 12	관아(예안현)에 청원서 올리고 수령의 재가를 받음
1699. 8. 26	터를 닦기 위해 개기제(開基祭) 지냄
1700. 2. 10	지역의 外派에게 협조 통문 발송
1700. 3. 15	경상도관찰사에게 협조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
1700. 9. 17	도산서원 원장이 예안향교에 협조를 요청함
1700. 9. 29	도산서원에서 鄉中 사림(士林) 30여명 의논하여 정사를 서원으로 승격시키기로 함
1700. 10. 10	도감(都監)이 鄉中에 영조부조를 부탁하는 문서 발송
1701. 2. 29	조영조직 새 首任에 남천우, 새 都監에 박중채 선출
1701. 4. 24	삼계서원, 창해서원, 영양향교에 통문 보내기로 함
1701. 7. 18	영조 협조에 대해 의논하자는 통문을 鄉中에 발송
1701. 7. 20	애일당에 모여 여군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의논함
1701. 10. 21	이명하 형제, 外派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작성
1701. 10. 23	首任, 수령 만나 續案, 加田, 立楹 결재 받음
1702. 2. 미상	중 병술이를 8냥에 사서 관아에 등록
1702. 3. 8	추명의 집을 매입, 고직사로 고쳐 사용하기 위한 경상도관찰사에게 곡식 및 일할 官奴 지원을 요청
1702. 윤6. 1	서원의 사당, 강당, 재사의 堂號를 준비
1702. 윤6. 19	일꾼을 요청하는 문제를 의논하여 결정
1702. 윤6. 21	鄉中에 일꾼을 요청하는 통문 발송
1702. 7. 18	10월10일 奉安하되 향중회의에서 최종 결정기로 함
1702. 10. 7	7일 입재하여 8일에 이안 고유식 거행

이어 지역의 관아(예안현)와 서원·향교·사림 및 경상도관찰사에게도 정사 건립계획을 알리고 행·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먼저 1699년 7월 12일 조영조직의 도감(都監)인 이명하·이백업·이동필 등이 예안현감에게 농암 정사 건립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재가를 받았다.¹⁵⁾ 예안현감의 재가를 받

『창원일기』, 1699. 7. 11

14) ①會于愛日堂 以十一日內外孫 聚議事定期焉 發文于外居門中 豊基 順興 聞慶 寧海 醴泉 而文字則上全 又通于榮川 安東 英陽 傍親所在處 其文曰...欲於愛日堂畔 創建一精舍...又發文於大丘 慶州外孫楊任兩門... 『창원일기』, 1699. 7. 2, ②會愛日堂 發書于烏川諸外族... 『창원일기』, 1699. 7. 9, ③...議發文字于鄉中外派曰 推我 先祖影堂創始之役 已過一年 財力俱竭 完畢無期 若干孫孫 計無所出 茲敢通告於外派尊尊 伏願隨力願助 俾無狼狽之患 云云. 『창원일기』, 1700. 2. 10

15) ...李明夏李百業李東弼等 入官門呈文 得題則曰 先賢之風 山高水長 後裔之營 心思日存 余適守 茲樂與厥成 云云 主倅 則許城主源也...

음으로써 정사 건립은 영천이씨 문중뿐만 아니라 지역 관아가 관심을 가져야할 일이 되었다. 농암의 내외 자손 외에 지역 사립은 물론 관내 동민까지도 참여해야 하는 일로 발전한 것이다. 1700년 3월 15일에는 경상도관찰사에게도 농암의 위패를 모실 정사 건립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¹⁶⁾ 이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마친 후 1702년 3월에 경상도관찰사에게 곡식(영조부조) 및 역부로 일할 관노(官奴)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¹⁷⁾

예안현감과 경상도관찰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서원과 향교 등도 분강서원¹⁸⁾의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영조부조 형식으로 적극 지원했다. 이를 주도하고 주선한 것은 도산서원의 원장과 사림들이었다. 1700년 9월 29일에 향중(鄉中) 사림 30여명이 도산서원에 모여 건립중인 정사를 서원으로 발전(승격)시키기로 결의하고 조영조직(成造所)의 새 도감으로 지역의 명망가인 이두로(李斗老)와 손경증(孫景曾)을 선출했다.¹⁹⁾

전술한바와 같이 지역 사림들이 건립중인 정사를 서원으로 승격(발전)시키기로 함에 따라 1700년 10월부터 공역(工役)은 서원의 건축형식과 기능에 맞추어 추진되었다. 공역이 확대되면서 부족한 재목과 역부 및 건축비를 시급히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 조영조직에서는 1701년 4월 24일에 도산서원과 상의하여 경상도 각처에 통문을 보내 영조부조 및 지원을 요청했다²⁰⁾. 이 같은 어려움을 향교·서원²¹⁾ 및 관아²²⁾ 그리

『창원일기』, 1699. 7. 12.

16) ...聞道伯(李相公世載也)巡到花府 李明夏 李百業等進去呈文 則題辭 有曰 卽今春窮孔慘 且有一半留庫之令 則雖是斯文重事 事有緩急待秋更呈 則從當優給 云云... 『창원일기』, 1700. 3. 15

17) 巡使到縣 以役糧及屬公奴婢題許事 呈文則別會米一石題給 奴婢則如有可合者 從當量宜劃給云. 『창원일기』, 1702. 3. 27

18) 서원의 전개과정은 명종까지의 초창기, 선조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기의 발전기, 숙종에서 영조초까지의 남설기, 영조 17년 이후 서원철폐 및 쇠퇴기로 나뉜다. 분강서원은 남설기 초에 건립된 서원이며, 이때 경상도에 설립된 서원(사우외)은 76개소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書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 三十餘員 會于陶院 定共尊之議 通文于鄉中 其文曰 龔巖李先生崇奉揭虔之議 發於頃日 而今此聚會 已得完定 因其影堂 擬建書院 揆諸共尊之道 合有願助之舉 茲仍僉論 敢此奉告...各其洞內限 各計役丁穀斗 隨力送助 俾無大事狼狽之弊 云云...定出成造都監李斗老 孫景曾. 『창원일기』, 1700. 9. 29

20) 以山長勸起事 會于陶院 與校長金湊及院齋任金泰國 李守約相議 發文道內 紙地則取辦於陶院也...傳于三溪及昌海兩院 一度則使校倅 傳于英陽 ...迺者一縣士友 相與合謀 始建廟宇於愛日堂之西 以爲揭虔之地 而事鉅力綿 數年未就 倘擬 僉君子同聲願助 將無訖功之日 茲敢奉告 伏願 僉君子 隨力惠濟 俾完大事甚甚 題名至百餘員 以求助事 聯名修書于權靈山斗經... 『창원일기』, 1701. 4. 24

21) 각주 19 및 각주 22의 ①, ②, ③

고 향중 사림의 지원과 협조²³⁾를 받아 해결하고, 1702년 10월 8일에 향현사에 있던 농암 이현보의 위패를 신축한 서원 사당에 이안(移安)하고 다음날 고유제를 거행함으로써 창원의 전 과정은 종료되었다.²⁴⁾

이처럼 분강서원은 먼저 농암의 문중원들이 정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문중원들은 분담한 경비를 영조부조 형식으로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애일당 남쪽에 정사의 사당을 착공하는 것으로 창원 활동이 본격 시작되었다. 농암의 내외 자손 및 영천이씨 각 지파에도 정사 건립계획을 알리고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영조부조의 범위를 확대해 갔다. 행정적으로는 예안현감과 경상도관찰사로부터 정사 건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내심 서원을 건립하고자 했던 농암 자손의 의도는 후에 향중 사림들이 나서서 건립 중인 정사를 서원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의함에 따라(1700.9.29) 이후 공역은 서원의 형식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히 분강서원의 창원에는 지역의 유력한 가문과 향교·서원·관아 등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역 동민들의 부역 노동이 큰 기여를 했다. 이처럼 안동 분강서원은 예안현 사회구성원들의 인적·경제적 지원 및 협조가 있어 비로소 설립될 수 있었다.

3.2 건축자재의 수급 및 장인과 역부의 동원

22) ①陶山享祀罷齋後 院長李察訪克哲 與多士立議 通告于本校(예안향교 : 필자) 其文若曰 巖李先生 揭虔崇奉之議 累出於前輩 而尙此遷就 實是士林之所嘗慨然者也 者影堂建於汾川 揆以共尊之道 可委之於子孫. 而不與之謀乎 茲將鄙見 敢此通諭 伏願僉尊 一處聚會 以爲相議之地 云云. 『창원일기』, 1700. 9. 17, ②以山長勸起事 會于陶院 與校長金湊及院齋任金泰國 李守約相議 發文道內 紙地則取辦於陶院也...傳于三溪及昌海兩院 一度則使校伴 傳于英陽 ...迺者一縣士友 相與合謀 始建廟宇於愛日堂之西 以爲揭虔之地 而事鉅力綿 數年未就 倘擬 僉君子同聲願助 將無訖功之日 茲敢奉告 伏願 僉君子 隨力惠濟 俾完大事幸甚 題名至百餘員 以求助事 聯名修書于權靈山斗經... 『창원일기』, 1701. 4. 24, ③...首任入謁 邑倅本院假屬案 及加田立旨 踏印而出... 『창원일기』, 1701. 10. 23

23) ①...發文鄉中各洞 其文曰 鄉中士林 爲我 巖巖李先生 仍其子孫 所營之影堂 圖建書院 以爲共尊之地 惟我同志之人 孰不聞風而興起也 哉 僉尊已見士林文字 而細悉其通告之意矣 茲敢轉諭于各洞 伏願僉尊 一依士林通文 同聲相應 期於必成 云云... 『창원일기』, 1700. 10. 10, ②首任及朴都監來到 校長金湊 院齋任尹商衡亦來 相議凡事 仍發文鄉中... 『창원일기』, 1701. 7. 18, ③鄉中會員及校院任員 并三十餘會于愛日堂 議定各洞人丁 更爲赴役事 罷坐後 周覽成造所 移時各散歸...西北兩面軍連日來役 陶山長權斗寅後張開寧璫氏代其任 到院時來于成造所稟話. 『창원일기』, 1701. 7. 20, ④任來 以役軍起送事 發文于鄉中 掌議金慶河來宿. 『창원일기』, 1702. 윤6. 21, ⑤奉安日期 定於十月上丁 上丁乃十日也 有許多議處事 將以八月初四日 聚會鄉中 故發文通告焉 又草聚會時 收議節目 是夕首任 及孫都監歸. 『창원일기』, 1702. 7. 18

24) 蓋爲翌日 移安而來也...翌朝鷄鳴行事 告由于鄉社 其文曰 今有士論 建院汾川 式茲移安於千萬年 巳時 乃移安而來... 『창원일기』, 1702. 10. 7

1) 자재 수급

분강서원의 건축공정은 크게 전후 두 기간으로 구분된다. 초반은 농암 자손들이 정사를 짓기로 한 결정에 따라 애일당 남쪽에 건립할 때까지이고, 후반은 지역 사림들이 정사를 서원으로 승격시키기로 한 결의에 따라 조영조직을 개편하고 관아와 지역민의 지원을 받아 서원의 형식을 갖추던 기간을 말한다. 전후 두 기간에 있었던 건축자재 수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아래 표.2를 중심으로 분강서원 창원시 건축자재 수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영조직에서는 1699년 7월 11일에 정사를 애일당 남쪽 황응상의 옛 집터에 정사를 짓기로 결정하고²⁵⁾ 정사 건립에 필요한 재목을 확보하는 일에 착수했다. 필요한 재목은 직접 벌목하거나 주변의 각 마을로 부터 영조부조 형식으로 얻는 방식으로 조달했다. 주재료인 목재를 수급하는 일은 주로 조영조직의 재목유사가 맡아보았다. 창원일기에 재목유사 이몽필, 이기백이 1699년 7월 12일 역부를 데리고 낙동강 상류에 가서 벌목한 기록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⁶⁾ 대들보로 쓸 장대재는 백운지(白雲池) 인근 금의수(琴義操)의 산소에 가서 벌목한 후 이를 뗏목으로 띄어 애일당 인근까지 운반하여 사용했으며, 이밖에도 예안현 본면(本面) 각동으로 사람을 보내 재목을 직접 구해오기도 했다.²⁷⁾ 원당동(元塘洞) 동민들이 서까래 70여개를 직접 성조소로 갖다 주기도 했다.²⁸⁾

표 2. 건축자재의 수급

연월일	내용
1699. 7. 12	이몽필, 이기백이 일꾼 데리고 (낙동강)상류에 가 벌목
1699. 윤7. 미상	本面 마을에서 재목을 가져옴. 대들보로 쓸 재목 벌목
1699. 윤7. 28	기와제작 시작. 계상, 은혜, 원당, 둔촌동에 일꾼을 요청
1699. 8. 미상	원당동 역부들이 연목 70여개를 운반해 옴
1699. 8. 9	은혜 일꾼 데리고 고은교 선산에 가서 벌목. 기와 제작
1699. 8. 26	개기제(開基祭) 지냄
1699. 8. 30	(사당) 건축 시작, 건축일과 기와 굽는 일 계속함
1699. 9. 미상	용사 승려, 초석 10여개를 가져옴
1700. 3. 15	사당에 기와덮음, 道谷齋승려, 기단, 계단 조성
1701. 3. 5	기와가마를 오야동으로 옮김, 철물유사 이문노와 윤상시가 돈 6냥으로 철 50여근을 사서 야장 불려 쇠못 만듦
1701. 7. 9	강당에 쓸 마루판 가져오는 일로 여러 마을에 편지
1702. 3. 8	공사 재계. 재목 부족 동내에 협조 요청.
1702. 6. 1	사우, 강당, 계사의 당호를 정할 준비를 하다. 역사 재계

25) 각주 13 참조

26) ...材木有司等 連日伐材 李夢弼李基伯 晉去奉縣呈文 得人丁若干名 伐材于上流. 『창원일기』, 1699. 7. 12

27) ...借材于本面各洞 陸續輸納 故逐日捧上 所捧百餘箇也 借得樑木于白雲池 琴義操山所 斫取流下 而木重水淺 累日辛勤 得達于堂下 大者三箇 中者三箇. 『창원일기』, 1699. 윤7. 미상

28) ...元塘洞內人丁 運納椽木七十餘箇. 『창원일기』, 1699. 8. 미상

12 논문

그 후에도 재목유사 이몽필 등이 온혜(溫惠)마을에서 일하러 온 역부를 데리고 고은교의 선산(先山)에 가서 필요한 재목을 베는 등²⁹⁾, 정사 건립에 필요한 재목의 벌목과 및 운반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건축 공사를 하다가 재목이 모자랄 경우 예안현 관내 각동에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또는 통문)를 보내 구하기도 했다. 그 예로 1701년 7월 9일 강당을 수장할 때 당판(堂板, 청판)이 부족하여 도감이 예안현 관내 갈전(葛田)·대곡(大谷)·고암(高巖) 등의 마을에 편지를 보내 청판을 구한 적이 있다.³⁰⁾ 그 후 1702년 3월 8일에도 강당을 짓는데 쓸 재목이 부족하여 계상(溪上) 및 면내 각동(洞)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³¹⁾

이처럼 공역에 쓸 재목은 재목유사가 역부를 데리고 직접 벌목하여 확보했으나 공사 도중에 재목이 부족할 경우 예안현 각동에 편지를 보내고 영조부조 형식으로 충당했다. 창원일기의 기록과 내용으로 보아 공역기간 내내 재목의 확보와 조달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재료인 목재는 낙동강 상류의 산지에 가서 벌목해서 쓰거나 아니면 각 동에 보관 중인 재목을 영조부조 형식으로 얻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요한 재목을 직접 벌목하여 사용했던 조선후기 목재 수급방식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재목을 준비하는 한편 기와를 구울 가마를 만들고 기와 굽는 일에도 착수했다. 이는 건축 현장 인근에 가마를 만들고 거기서 기와를 만들어 사용했던 전통적인 건축 생산방식을 따른 것이다. 1699년 윤7월 28일에 예안현 하사동에 기와 가마를 만들고 거기서 기와를 제작했으며, 이 일에는 계상(溪上)·온혜(溫惠)·원당(元塘) 둔촌동(遁村洞)의 동민들이 동원되었다.³²⁾

벌목과 영조부조를 통해 필요한 재목을 확보하고, 기와 굽는 일도 진척을 보이자 1699년 8월 26일에 개기제(開基祭)를 지내고³³⁾ 사당 건축에 착수했다. 8월 30일에도 사당을 짓는 일과 기와 굽는 일이 계속되었다.³⁴⁾ 1699년 9월 ?일(미상)에 용사(龍寺)³⁵⁾ 승려들이

초석 10여 개를 역소에 가져 왔는데,³⁶⁾ 공정으로 보아 이 초석들은 사당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701년 3월 5일에 하사동에 있던 기와 가마를 의인(宜仁) 오야동(烏也洞)으로 옮겼는데,³⁷⁾ 오야동으로 옮긴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때 철물유사 이 문로와 윤 상시가 돈 6냥을 주고 철(鐵) 50여근을 구입하고 성조소로 야장(冶匠)을 불러 필요한 쇠못을 만들어 사용했다.³⁸⁾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분강서원 건축시 재목은 낙동강 상류의 산에 가서 벌목하거나 관내 각동으로 부터 영조부조 형식으로 얻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기와는 하사동과 의인 오야동에 가마를 두고 거기서 만든 것을 사용했으며, 생산한 기와의 수량 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쇠못 등 건축철물은 철재(鐵材)를 구입한 다음 야장을 불러 필요한 쇠못 등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건축철물 수급방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부족한 재목을 관내 각동(各洞)으로부터 수차례 지원받은 것은 주택 등의 사적 건축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다.³⁹⁾

2) 건축공정 및 장인(匠人)과 역부(役夫)의 동원

분강서원의 건축공정은 입지선정, 주요 건축자재 준비, 사당, 강당, 동서재, 신문과 전사청의 건축 순으로 진행되었다. 예일당 남쪽에 위치한 황응상의 옛 집터에 정사를 짓기로 하면서 공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정사 터를 정한 다음 개기제를 지낸 후 터를 닦았다. 목재를 베어 운반하는 한편 역부를 동원하여 기와 가마를 만들고 기와를 제작할 준비를 했다. 이를 자세히 정리한 것이 표.3이다.

1699년 8월 26일에 개기제를 지내고,⁴⁰⁾ 사당을 짓는 일에 착수함과 동시에 기와 가마를 만들고 기와를 구웠다.⁴¹⁾ 9월 7일에 사당 터에 지정을 했으며⁴²⁾, 기둥을

34) 始役成造 成造瓦役 逐日不輟. 『창원일기』, 1699. 8. 30

35) 예안현 북쪽에 있던 용수사(龍壽寺)의 약칭으로, 경상도음기(1832년경, 圭666)에 수록된 예안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發龍寺僧徒入礎石十餘塊 水上軍 連日地定 烏川金璋 金泰國送役奴 金湊送役奴四名. 『창원일기』, 1699. 9. 미상

37) 移穿瓦竈于宜仁烏也洞...錢文六兩 送于鐵物有司李文老 尹商著 質鐵五十餘斤 召匠人作釘于本所... 『창원일기』, 1701. 3. 5

38) ...錢文六兩 送于鐵物有司李文老 尹商著 質鐵五十餘斤 召匠人作釘于本所... 『창원일기』, 1701. 3. 5

39) 지방에서 양반사대부가 주택을 지으면서 각동에 편지를 보내 재목을 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1, 184~185쪽)

40) 開基祭神 其文曰...(相地)營建精舍 相地便宜 愛日堂南 汾川村北 背出面洛 地勢敞閑 揭虔妥靈 咸曰 是吉乃敢叶議卜日 拓基神其鑿...云云. 『창원일기』, 1699. 8. 26

29) 李夢弼等率溫惠人丁 伐材于高隱橋先山...瓦役則連董不輟. 『창원일기』, 1699. 8. 9

30) 都監朴重采孫景曾來留宿 以堂板收送事 裁書于葛田 大谷 高巖各洞. 『창원일기』, 1701. 7. 9

31) ...更起役事而材木不足又求助于溪上及面內各洞... 『창원일기』, 1702. 3. 8

32) ...穿瓦竈于下寺洞 始起瓦役 以人丁借得事 裁書于溪上 溫惠 及元塘遁村洞內... 『창원일기』, 1699. 윤7. 28

33) 開基祭神 其文曰...(相地)營建精舍 相地便宜 愛日堂南 汾川村北 背出面洛 地勢敞閑 揭虔妥靈 咸曰 是吉乃敢叶議卜日 拓基神其鑿...云云. 『창원일기』, 1699. 8. 26

입주한 후 겨울철이 되어 공사를 중지했다.⁴³⁾ 이듬해인 1700년 2월 4일에 목수 임남(任男)이 돌아와 사당 공사를 재개했다.⁴⁴⁾ 사당의 상량 일에 맞추어 영양에 사는 조 덕린에게 청하여 상량문을 짓고,⁴⁵⁾ 1700년 3월 15일에 사당의 지붕에 기와를 덮었다. 사당의 기단과 계단은 영천이씨 도곡재사를 관리하는 승려들이 와서 조성했다.⁴⁶⁾ 이로써 1700년 3월 30일에 사당을 완공했다.

표 3. 건축공정 및 건축 장인과 역부의 동원

연월일	내 용
1699. 7. 11	地舖를 데려와 예일당 남쪽 황옹상의 옛 집터를 보임
1699. 윤7. 28	기와 제작 시작. 계상, 온혜, 원당, 둔촌동에 일꾼을 요청
1699. 8. 9	온혜 일꾼을 데리고 고은교 선산에 가 벌목. 기와 제작
1699. 8. 26	개기제 지남
1699. 8. 30	(사당) 건축 시작, 건축일과 기와 굽는 일을 계속함
1699. 9. 미상	용(수)사 승려, 초석 10여개 가져옴, 연일 지경, 烏川 金璋○씨·金泰國·金湊○씨가 役奴 4명을 보냄
1699. 9. 26	사당 입주 후 겨울철에 접어들어 공사를 중지함
1700. 2. 4	목수 임남이 돌아와 건축공사 재개함
1700. 2. 24	영양에 사는 조덕린이 사당 상량문을 지음
1700. 3. 15	사당에 기와덮음, 도곡재사 승려가 기단과 계단 조성
1700. 3. 30	사당 완공, 목수들이 돌아감(手功으로 22년 지급)
1700. 4. 18	목수로 僧匠 懷默, 智軒 등을 불러 강당 건축을 시작함
1700. 5. 3	강당 입주(立柱)
1700. 5. 11	강당 상량, 여름 시작되어 공사 중지하고 목수 돌려보냄
1700. 10. 10	각동(各洞)에 역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통문을 보냄
1701. 2. 15	향중(鄉中)에서 역부 건으로 의논했으나 성과 없이 끝남. 목수가 건축 일을 시작함
1701. 3. 5	기와 가마 오야동에 옮김, 철50여근구입, 대장장이 부름
1701. 4. 24	각 동네의 일꾼들이 와서 연일 일을 함
1701. 5. 2	4월 27일에 시작한 강당 지붕에 기와 이는 것을 마치고 공역을 중지함
1701. 8. 14	國喪(숙종비 인현왕후 민씨 승하)로 공역 중지
1701. 11. 미상	강당 대청 주위 修粧 공사
1702. 3. 8	공사재개. 재목부족 마을에 협조요청. 대청,방 주위 수장
1702. 3. 27	농사일로 역사(役事) 중지
1702. 윤6. 19	일꾼을 요청하는 문제를 의논하여 결정
1702. 윤6. 21	鄉中에 일꾼을 요청하는 통문 발송
1702. 윤6. 26	향중 外派에게 통문 발송, 향중 役奴가 연일 일함.
1702. 윤6. 28	목수 이성도가 와서 신문, 전사청 공사 시작. 양벽장(仰壁匠)이 와서 먼저 묘우의 사벽 공사를 함
1702. 7. 6	인근에 사는 두 시원의 종을 공사에 투입함
1702. 7. 9	신문, 전사청 입주, 서원 奴와 향중 役奴가 연일 일함
1702. 7. 16	용(수)사 승려장인을 데려와 대청 양벽의 1/2을 바름
1702. 7. 18	성천사 승려들이 양벽 공사를 마침
1702. 7. 19	이향표가 마을의 일꾼 40여명을 보냄
1702. 8. 4	마을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7개 면에 편지함
1702. 8. 20	각 面의 洞軍들이 속속 공사에 참여

이처럼 1699년 8월 26일에 개기제를 지낸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1700년 3월 30일에 사벽 바르는 일과 단청만 남겨두고 사당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공사 중지 기간 약4개월을 빼면 사당의 공기는 3개월 정도였다. 이때 하지 못한 사당의 사벽 바름과 단청공사는 약2년 뒤에 마쳤다. 1702년 윤6월 28일에 양벽장(仰壁匠)이 와서 사당(廟宇)의 사벽을 발랐으며,⁴⁷⁾ 이해 9월 17일에는 단청공사도 마쳤다.(廟宇丹靨始畢) 창원일기에 사당의 규모와 형식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10여개의 초석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아 전퇴 없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추정된다.

사당에 이어 1700년 4월 18일부터 강당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승려장인 회묵(懷默)과 지현(智軒)이 목수로 참여했다.⁴⁸⁾ 착공하고 보름 후 강당의 기둥을 세우고,⁴⁹⁾ 5월 11일에 상량했다. 상량 후 여름철이 되어 공역을 중지하고 목수를 돌려보냈다.⁵⁰⁾ 이것으로 볼 때 강당의 건축은 착공한지 약24일 만에 상량할 정도로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 1701년 2월 15일에 목수가 와서 강당 공사를 재개하여,⁵¹⁾ 5월 2일 지붕에 기와를 덮고 공사를 중지했다.⁵²⁾

강당을 건축 중이던 1701년 8월 14일에 숙종비 인현왕후 민씨가 승하하는 국상(國喪)으로 3개월여 동안 공역을 쉬었다가,⁵³⁾ 11월 ?일(미상)에 강당의 대청과 방(廳堂)을 수장했다.(修粧廳堂) 겨울이 되어 공역을 중지했다가 1702년 봄(3월 8일)에 재개했으며, 本村에서 온 역부(人丁)들이 강당의 대청과 방 주위 수장 공사를 했다.⁵⁴⁾ 1702년 3월 27일부터 농사일로 4개월 동안 공사를 쉬었다가(..則以農務停止), 7월16일에 공사를 재개했다. 이날 龍寺의 僧匠들이 와서 강당의 대청 양벽(仰壁) 중 나머지 반(半)을 발랐다.⁵⁵⁾ 이것으로 보아 1700년 4월 18일에 착공한 강당 공사의 경우 2년 3개월이 지난 1702년 7월 16일에 이르러 일부 수장 공사

41) 始役成造 成造瓦役 逐日不輟. 『창원일기』, 1699. 8. 30

42) 發龍寺僧徒入礎石十餘塊 水上軍 連日地定 烏川金璋 金泰國送役奴 金湊送役奴四名. 『창원일기』, 1699. 9. 미상

43) 廟宇立柱 是後入冬輟役. 『창원일기』, 1699. 9. 26

44) 木手壬男復到 始役. 『창원일기』, 1700. 2. 4.

45) 上樑之文 卽英陽說書德鄰所撰也 歲前李瀟 往請于說書 說書隨後製送 而有相議事 二月十九日 李東弼 又往英陽 歸路見上里金進士璉有所(相)商確改正處... 『창원일기』, 1700. 2. 24

46) 蓋瓦 道谷齋舍僧徒來 築階墻... 『창원일기』, 1700. 3. 15

47) ...仰壁匠來先塗廟宇因爲沙壁... 『창원일기』, 1702. 윤6. 28

48) 得木手僧人 懷默 智軒等 始役講堂. 『창원일기』, 1700. 4. 18

49) (講堂)立柱. 『창원일기』, 1700. 5. 3

50) 上樑以入夏停役 放送木手... 『창원일기』, 1700. 5. 11

51) 木手始役..鄉中若干員以人丁呈得事會于邑中未果而罷. 『창원일기』, 1701. 2. 15

52) (講堂)蓋瓦始畢 仍爲停役. 『창원일기』, 1701. 5. 2

53) 坤殿國恤出 仍爲停役. 『창원일기』, 1701. 8. 14

54) ...更起役事 而材木不足 又求助于溪上及面內各洞...以本村人丁 連日修粧大廳房舍. 『창원일기』, 1702. 3. 8

55) 借龍寺僧 仰壁大廳 纔半而止... 『창원일기』, 1702. 7. 16

만 남기고 공사를 거의 마친 것으로 보인다.

강당에 이어 사당과 함께 제향공간에 속하는 신문과 전사청을 지었다. 이 공사는 1702년 윤6월 28일에 착공했는데,⁵⁶⁾ 공사는 민간목수인 이성도(李成道)가 맡아 지었다. 신문과 전사청공사는 7월 9일에 입주(立柱)하고⁵⁷⁾, 7월 18일에 양벽(仰壁) 공사를 마쳤다고 하나⁵⁸⁾ 지붕에 기와를 덮은 일자가 보이지 않아 공사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창원일기에 동·서재 건축기록은 없으나 다만 ‘새 재사(齋舍)에서 함께 잤다⁵⁹⁾’는 기록으로 보아 동·서재도 이때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의 고직사(또는 廚舍)는 새로 짓지 않고 대신 외거노비 추명(秋明)의 가옥을 매입하여 고쳐 사용했다.⁶⁰⁾ 소유자인 추명의 이름에 성(姓)이 없는 것으로 그가 신분이 낮은 외거노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분강서원 건립에는 목수를 비롯 와장(瓦匠)·개장(蓋匠)·양벽장(仰壁匠)·석수·야장(冶匠)등 여러 전문 장인들이 종사했다. 창원일기에는 목수에 대해서만 소속과 이름 등을 명기하여 그들이 승장(僧匠)인지 민간 장인인지 구분할 수 있을 뿐 기와를 만든 와장, 지붕에 기와를 덮는 일을 한 개장(蓋匠) 그리고 사벽을 바르거나 천장 양토를 발랐던 양벽장의 경우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다. 용(수)사와 성천사의 승장을 데려와 대청 양벽을 발랐다⁶¹⁾는 것으로 보아 사벽과 양벽치는 일도 승려 장인이 주로 맡아 일했음을 알 수 있다.

분강서원의 조영에는 민간 목수와 승려 목수가 함께 참여했다. 사당을 지은 목수는 민간장인 임 남(任男)이었다. 창원일기의 ‘임 남이 돌아와 건축공사를 재개했다⁶²⁾’는 기록으로 보아 그가 규모 작은 사당을 지을 때 목수로 일했음을 알 수 있다. 사당에 이어 강당을 지을 때는 승장인 懷默과 智軒이 목수로 종사했으며⁶³⁾, 제향공간에 속한 소규모 건물인 신문과 전사청을 지을 때는 민간 목수 이성도가 일했다⁶⁴⁾. 단, 동서

재의 경우 기록이 없어 참여 목수를 알 수 없다.

위 내용을 살펴볼 때 사찰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건축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가진 승려 장인(회묵, 지현)에게 강당 공사를 맡기고, 민간장인 임 남과 이 성도에게 강당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당·신문·전사청을 짓게 한 것은 당시 건축계의 사정과 기술력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 말 18세기 초 경상도 예안현에서는 승장과 민간장인이 서로 건축일을 두고 경쟁했으나 기술 수준이 높은 승장이 민간 목수에 비해 다소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⁵⁾. 승려 또는 승장은 석수와 양벽장으로도 활동했다. 석수로 사당에 쓸 초석을 다듬고⁶⁶⁾ 기단과 계단 등을 조성하기도 하고, 양벽장으로 사벽과 양벽을 치는 일도 한 것으로 보인다.⁶⁷⁾ 이것으로 볼 때 18세기 초까지 예안현에서는 승장(또는 승려)이 목수, 석수 및 양벽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예안 지역 영천이씨의 묘제용 재사인 도곡재사(道谷齋舍)에 있던 승려들이 사당의 기단과 계단을 조성했다는⁶⁸⁾ 것으로, 이는 양반 사대부가의 재사를 관리하던 승려들이 서원 등 각종 건축공사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기와를 제작한 와장과 지붕에 기와를 덮은 개장(蓋匠) 등에 대해서는 이름과 신분을 기록하지 않아 그들이 승장인지 민간장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참여한 모든 장인에게 일정한 수공(手功)을 지급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사당을 맡았던 민간 목수 임남에게 수공(手功)으로 돈 22냥을 지급한⁶⁹⁾ 것으로 보아 목수·석수·와장·양벽장 등에게 일정한 수공을 지급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공역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역부의 경우 창원일기에 개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살았던 계상·온혜·원당·둔촌동 등의 동(洞) 명칭만 기록되어 있다.⁷⁰⁾ 따라서 분강서원 공역에 어느 동민(洞民)들이 주로 참여했는지만 알 수 있다(표.3). 역부로는 각동에서 동원된 인정(人丁) 외에 인근 서원의 종(奴)⁷¹⁾ 및

56) ...木手李成道來 始役神門及典祀廳... 『창원일기』, 1702. 윤6. 28

57) ...神門及典祀廳立柱... 『창원일기』, 1702. 7. 9

58) 又借聖泉僧 仰壁畢役. 『창원일기』, 1702. 7. 18

59) ...上里金進士璠○(氏)亦來 是夜共宿新齋... 『창원일기』, 1702. 윤6. 18

60) ...買得秋明家 將欲改作廚廩之所故也. 『창원일기』, 1702. 3. 8

61) 각주 55, 58 참조, 용수사는 용두산 남쪽에 있는 고려때 절이며, 성천사는 요성산에 있던 사찰로 예안현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25권』, 경상도 예안현 佛宇條)

62) 각주 44 참조

63) 각주 48 참조

64) 각주 56 참조

65) 승장들이 17~18세기 지방의 민간 건축공사나 사찰 공사를 비롯 향교, 객사 건축 등 광범하게 활동했다는 김동욱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김동욱, 『한국공장사 연구』, 기문당, 1993, 197쪽)

66) 각주 42 참조

67) 관내 龍壽寺와 聖泉寺 승려가 참여했음(각주 55, 58 참조)

68) 각주 46 참조

69) 廟役訖功 木匠罷歸 手功則二十二兩也... 『창원일기』, 1700. 3. 30

70) 溪上·溫惠·元塘 遁村洞 등으로

71) ①...以兩院奴 在近者立役事 定議分付焉. 『창원일기』, 1702. 7. 6

향중(鄉中) 역노(役奴)⁷²⁾ 등도 참여했다. 초기에 정사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이 향중 사림에 의해 서원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면서 역부 동원 범위도 예안현 관내 각동으로 확대되었다. 향중 사림들이 서원으로 승격하기로 결의하고 새 성조도감에 선임된 이두로(李斗老)와 손경증(孫景曾)은 향중 각동에 통문을 보내 역소의 계획에 맞추어 역부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⁷³⁾. 창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통문을 살펴보면 당시 역부 동원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암 이 선생을 위해 그의 자손들은 影堂을 짓고 서원을 세우고자 하는데. (중략) 통문에 따라 한목소리로 서로 응해 기한 내 이루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동(洞)은 능력을 감안하여 공역을 도울 수 있는 역부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각 동내(洞內)에 있는 임원(任員)은 역부를 이달(10월) 21일까지 보내고, 본동(本洞)에서는 문자를 수합하여 도청(都廳)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동내의 상하인(上下人)의 수에 따라 역부(役夫) 수를 정해 보내주기 바랍니다...”⁷⁴⁾

위 통문의 내용으로 보아 각 동(洞)에 거주하는 향중⁷⁵⁾ 임원을 통해 동별로 동원해야 할 역부(役夫)의 수를 할당하고, 이들을 통해 역부를 공역에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분강서원 건립 시 역부는 향중(鄉中) 사림이 장악하고 있는 향촌 지배체제를 통해 각동의 역부를 부역의 형식으로 동원하여 일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동에 할당한 역부를 동원하는 일은 계획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701년 2월 15일 기록에 ‘향중 사림 몇 명이 읍내(邑內)에서 역부를 구하는 일로 의논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⁷⁶⁾ 보아 조영조직의 개편된 후에도 역부 동원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702년 7월 19일에 예안향교 교장 이항표가 마을 역부 40여명을 보내주었으나 수가 적어 7개 면(面)에 편지를 보내 역부를 더 보내라고 요청해서 온 동군(洞軍)들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기록⁷⁷⁾에서 역부 동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역부의 동원은 향중(鄉中) 사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향촌의 지배체제를 통해 각동에 일정한 수의 역부를 할당하고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문중원들이 정사 건립을 추진할 때보다는 향중 사림이 분강서원 건립을 주도하면서 예안현 관내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실제 시행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건축경제 및 조영조직

4.1 영조부조(營造扶助)

조선시대 건축생산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재의 수급과 장인의 수공(手功), 역소 운영비 등의 제 경비를 영조부조로 조달했다는 점이다. 농암의 내외(內外) 자손 및 지역의 서원·향교·향중 사림·관아 등으로부터 받은 영조부조는 분강서원의 건축비와 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분강서원 건립 당시 각처로부터 받은 영조부조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농암의 내외 자손 및 각처에서 받은 영조부조

연월일	내 용
1699. 6. 2	문중원에게 통문을 보내 통지-문중원 1인당 돈1냥, 쌀보리 1말, 누룩 1장을 내되, 형편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1699. 윤7. 3	이원식 수합유사 쌀보리 11말을 거두어 음
1699. 윤7. 28	본면 각 마을에 가서 재목을 구함. 이날 받은 재목 100여 개 白雲池의 금의수 산소에서 대들보 감 재목을 빌려옴.
1699. 8. 9	관가(官家)에서 길보리 2섬과 조 2섬 부조
1699. 8. 9	이동직이 영양현 외손들이 보낸 돈 5냥을 거두어 음
1700. 2. 24	안동부사 홍득우가 강원도관찰사로 가면서 돈 10관 보냄
1700. 3. 6	경주 외손 임씨 가에서 돈 16관을 보내음
1700. 3. 30	이백춘이 큰 못 14개를 보내음
1700. 5. 11	外派 수합유사 영양 오삼달이 돈을 모아 보내음
1700. 8. 20	문중에서 형편이 나은 집에 곡식 섬을 별도로 분담시킴
1701. 3. 5	경상도관찰사가 교체되면서 細木 12필을 주도록 결재
1701. 4. 19	윤보장, 탁정정 일가가 곡식 섬을 부조, 류경희 일가 동진 3냥 부조
1701. 9. 미상	봉화향교 돈2관, 누룩 2장, 안동 경광서원 돈3관 보내음
1701. 10. 23	동래향교 돈 3관 보내음
1701. 11. 미상	승려 회운이 일직, 인하 등에 가서 돈 7관 거두어 음
1702. 1. 미상	승려 회운이 봉화 내성에 갔으나 다들 나중에 내겠다고 하여 겨우 돈 1관을 거두어 음
1702. 2. 미상	예안향교 교장 이항표 백지 1속, 장지 5장 부조
1701. 3. 8	도산서원 쌀 1섬, 좁쌀 1섬, 누룩 3대를 부조
1702. 7. 19	향청 조 1석, 도산서원·역동서원에서 축문지 15장 보내음
1702. 9. 1	재목 부족하여 계상 및 먼내 각동에 도움 청함
1702. 9. 1	김득하, 김국주 형제가에서 동진 1관 보내음. 봉화의 금훤(琴喧)이 동진 1관을 보내음
1702. 9. 2	자손 중에서 쌀섬과 돈 ?냥을 거두어 냄
1702. 9. 17	향중에서 쌀이 겨우 2섬이다. 그후 연이어 들어옴. 會稽 집안 일가들이 사는데서 돈 몇관을 받아들음. 안동 소요산 금씨 문중에서 전문 2냥 보냄. 원근 외손이 돈, 곡식 보냄
1702. 9. 28	경선서원(景山書院)에서 돈 1냥과 백지 1속 그리고 영산서원(英山書院)에서 돈 2냥과 백미 3말을 보내 음
1702. 10. 4	평해의 향교와 서원 및 향청 등에서 진(錢) 5관 보내음. 관에서 백미 7말, 누룩 1동이 부조
	이산서원(伊山書院)에서 돈 1냥을 보내음

○영조부조 소계 : 돈 504냥 쌀과 백미 50말(5섬) 쌀보리 11말, 조 20말(2섬), 좁쌀 10말(1섬) 길보리 20말(2섬), 곡식 10말(1섬), 누룩 2관+3대+1동
* 재목, 철물 등은 제외, 이안 고유시 부조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②...院奴及鄉中役奴 連日來役. 『창원일기』, 1702. 7. 9

72) ...鄉中役奴 逐日來到... 『창원일기』, 1702. 윤6. 26

73) 三十餘員 會于陶院 定共尊之議 通文于鄉中(중략)定出成造都監 李斗老 孫景曾. 『창원일기』, 1700. 9. 29

74) ...通文于鄉中 其文曰龔巖李先生 崇奉揭虔之議 發於頃日 而今此聚會 已得完定 因其影堂 擬建書院 揆諸共尊之道 合有願助之舉 茲仍僉論 敢此奉告 伏願僉尊 惕念送助 俾完大事 幸甚 此亦中 今此書院 實是斯文盛舉 而白地創建 工役活大 倘非一鄉 同心協力 則難以完就 更須十分惕念 各其洞內限 各計役丁穀斗 隨力送助 俾無大事狼狽之弊 云云... 『창원일기』, 1700. 9. 29

75) 향회(會)의 이칭. 16~17세기에는 향안(鄉案)에 이름이 수록된 양반, 즉 향원들로 향회가 구성되었다. 향원 중에서 뽑힌 좌수(座首)나 별감(別監) 등 향인(鄉任)들로 상설적인 모임을 구성하고 향촌 지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7640)

76) ...鄉中若干員 以人丁呈得事會于邑中未果而罷. 『창원일기』, 1701. 2. 15

77) ①李恒標○(氏)起送 其洞人丁 四十餘名... 『창원일기』, 1702. 7. 19
②翌朝以役丁 更爲起送之意 修書于七面洞內... 『창원일기』, 1702. 8. 4

농암의 자손들이 1699년 6월 2일에 정사를 건립하기로 결의한 후 구성된 조영조직에서는 문중원들이 분담해야 할 영조부조⁷⁸⁾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문중원에게 보낸 통문에서 ‘문중원 1인당 돈 1냥, 쌀보리⁷⁹⁾ 1말, 누룩 1장을 분담시키면서 향후 경제력에 따라 다소 가감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⁸⁰⁾ 이러한 사실을 통문을 통해 농암 친손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문중원(親孫)들이 낼 영조부조를 경제적 토대로 조영조직에서는 정사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창원일기에 문중원들로 부터 받은 영조부조의 자세한 용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돈(동전)은 역소의 운영비와 건축자재 구입비· 장인의 수공(手功) 등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쌀보리를 비롯한 알곡은 장인· 역부· 감역인 및 방문객에게 제공했던 음식의 재료나 건축자재 구입비 또는 장인 수공 등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 영조부조로 받은 누룩은 장인과 역부가 먹는 노동주(勞動酒)나 방문객을 접대용 술 등을 빚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

분강서원 건립 시 받은 영조부조 내역(<표 4>)을 살펴보면 최초의 영조부조는 1699년 윤7월 3일에 수합유사 이원익이 농암의 친손들로부터 거둔 쌀보리 11말이었다.⁸¹⁾ 동년 8월 9일에 영양현 거주 외손(外孫)들이 돈 5냥⁸²⁾, 1700년 3월 6일에 경주 거주 외손인 임씨가(家)에서 돈16관(貫)⁸³⁾을 각각 보내왔다.⁸⁴⁾ 3월 30일에 이백춘이 공역에 쓰라며 큰 못(大釘) 14개를 보내왔고,⁸⁵⁾ 외손의 영조부조를 담당할 외파(外派) 수합유사 오삼달(英陽거주)도 돈(동전)을 거두어 보냈다.⁸⁶⁾

이 같이 각지에 거주하는 농암 내외손의 영조부조에

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부족하여 조영조직에서는 1700년 8월 20일에 형편이 나은 문중원에게 곡식 섬⁸⁷⁾을 더 부담시키기로 했다.⁸⁸⁾ 1701년 11월 ?일(미상)에 승려 회운이 문서(통문)를 가지고 안동의 일직, 임하 등지에 가서 동전 7관(貫)을 거두어 왔다.⁸⁹⁾ 지난 1701년 1월에 승려 회운이 경북 봉화 내성에 있는 농암 자손을 방문했을 때는 뒤에 내겠다고 해서 겨우 돈 1관만 거두어 왔다.⁹⁰⁾ 공역이 거의 끝날 무렵인 1702년 9월 1일에도 자손들이 쌀섬과 많지 않은 돈을 부조한바 있고.⁹¹⁾ 다음날 원근(遠近) 외손들이 동전 또는 곡식을 거두어 보냈으며, 이날 들어온 영조부조의 수량은 창원일기에 적지 않고 별책(別冊)에 기록했다.⁹²⁾

예안현 주변 여러 유력한 타성(他姓)들도 정사 건립에 필요한 곡물이 돈을 부조했다. 윤보장(尹普章)과 탁청정⁹³⁾ 일가가 곡식 섬을 그리고 안동 류경희(柳慶輝) 일가가 돈 3냥을 보내왔다.⁹⁴⁾ 이밖에 김득하·김국주 형제가에서 동전 1관(貫), 봉화의 금환(琴暄)씨가 동전 1관을 각각 보냈다.⁹⁵⁾ 1702년 9월 2일에 예안현 향중에서 쌀2섬, 회계(會稽) 일가들이 돈 몇관(貫) 그리고 안동 소요산(素耀山) 김씨 문중(안동김씨)이 전문(錢文) 2냥을 보냈다.⁹⁶⁾ 이처럼 농암의 내외손은 물론 예안현 및 주변의 명문 유력가에서도 영조부조를 통해 서원 건립을 적극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공역의 초기부터 예안현을 비롯한 지방 관아 및 수령들도 영조부조에 적극적이었다. 예안현 관아가 1699년 윤7월 26일에 걸보리⁹⁷⁾ 2섬과 조 2섬⁹⁸⁾ 그리고 안

87) 10말을 말함

88) 李明夏來議處 凡事別定 穀石於門中稍康之家... 『창원일기』, 1700. 8. 20

89) 僧震運齋書 往一直臨河等處收聚孔方七貫而來 『창원일기』, 1701. 11. 미상

90) 運曾往奉化奈城則皆以從後收送爲言僅得錢貫而來 『창원일기』, 1702. 1. 미상

91) 子孫中收捧米石 及錢兩. 『창원일기』, 1702. 9. 1

92) ...遠近外裔 或錢或穀 隨力送助 而其數在別冊 此不煩錄. 『창원일기』, 1702. 9. 2

93)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에 있는 光山金氏宗家 부속 정자이다. 탁청정 김유가 1541년(중종 36)에 지은 정자로 정면3칸, 측면2칸 규모의 一자형 건물이다.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26호로 지정되어 있다.

94) 尹普章持扶助穀一石 來成造所 各洞扶助 則當此春窮 勢有所難 惟四五洞送助穀石 厥數在捧上記 濯清亭一家 收送穀石 安東柳慶輝○(氏)一家 送錢文三兩 ○○遠近各處 公私扶助. 『창원일기』, 1701. 4. 19

95) ...金得河○(氏)及金國柱○(氏)兄弟家 送錢一貫...奉化琴暄送錢一貫. 『창원일기』, 1702. 7. 19

96) 鄉中收合米 纔至兩石 其後陸續來到...李彥榮往會稽門族處 收捧錢文 若干貫而來 安東素耀山金門 收送錢文二兩... 『창원일기』, 1702. 9. 2

97) 보리를 쌀보리에 상대하여 일컫는 이름. 까락이 길고 껍질이 얇고 매우 밀착되어 있어서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아니함.

78) 창원일기에도 영조부조를 기록했지만 자세한 것은 별도의 ‘수합기(收合記)’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들어온 영조부조는 창원일기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近居子孫 各隨其力 收合麥斗其數 則在收合記. 『창원일기』, 1699. 6. 30

79) 보리의 한 품종. 씨알이 성숙해도 작은 껍질과 큰 껍질이 잘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걸보리와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 걸보리보다 내한성이 약하나 도정이 쉽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80) 각주10, 11 참조

81) 李元植以收合有司. 米牟十一斗來納... 『창원일기』, 1699. 윤7. 3

82) ...李東直持英縣外孫所送錢文 五兩來納 『창원일기』, 1699. 8. 9

83) 당시 화폐단위는 ‘1貫=10兩=100錢=1,000文’이라는 십진법에 의한 화폐단위가 적용되고 있었다. 기본이 되는 화폐 단위는 냥이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화폐 단위)

84) 慶州外孫任門集錢十六貫. 募僧委送... 『창원일기』, 1700. 3. 6

85) ...李伯春○(氏) 送大釘十四介. 『창원일기』, 1700. 3. 30

86) ...英陽吳三達○(氏) 以外派收合有司 傳送孔方厥數 則在別錄.. 『창원일기』, 1700. 5. 11

동부사 홍득우가 1700년 2월 24일에 돈10관을 보냈다.⁹⁹⁾ 1701년 3월 5일에 경상도관찰사가 역소로 세목(細木)¹⁰⁰⁾ 12필을 보냈으며,¹⁰¹⁾ 공역이 거의 끝날 무렵인 1702년 9월 28일에 관(예산현)에서 백미 7말, 누룩 1동이(同惠.)를 보냈다.¹⁰²⁾

지역의 유력가와 관아뿐만 아니라 주위의 향교와 서원 등도 영조부조를 보내 분강서원 건립을 적극 지원했다. 1701년 10월 23일에는 예산현에서 멀리 떨어진 동래향교에서 돈3관을 보내왔고, 봉화향교에서 돈2관과 누룩 2장(圓) 그리고 안동 경광서원에서 돈3관을 보내주었다.¹⁰³⁾ 이밖에도 1702년 2월 ?일(미상)에 예산향교에서 백지 1속·장지 5장 그리고 도산서원에서 쌀 1섬·좁쌀 1섬·누룩 3대를 부조했으며, 예산현 지역의 도산서원과 역동서원에서도 축문지 15장을 보내주었다.¹⁰⁴⁾ 이밖에 1702년 9월 17일에 경산서원에서 돈1냥과 백지 1속(束) 그리고 영산서원에서 돈2냥과 백미 3말을 부조했다.¹⁰⁵⁾ 이해 9월 28일에 평해의 향교와 서원 및 향청(鄉廳) 등에서 동전(錢) 5관을 모아 보내왔고,¹⁰⁶⁾ 10월 4일에 이산서원에서 돈 1냥을 부조했다.¹⁰⁷⁾ 이처럼 분강서원 주변에 있던 여러 서원과 향교 등에서 공역에 필요한 돈과 곡식·누룩·종이류 등을 부조하며 서원 건립을 적극 지원했다.

영조부조로는 창원(創院)에 필요한 돈과 곡물, 종이 등을 지원한 사례 외에 주 건축 재료인 목재를 보내주기도 하고 종(奴)¹⁰⁸⁾을 보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

주기도 했다. 창원 초반이던 1699년 윤7월 3일에 재목이 부족하여 예산현 본면(本面) 각동에 사람을 보내 100여 개(용도 불명)을 구해 온 것과 금의수(琴義操)가 백운지 인근의 산소에서 장대재(큰형3개, 중형3개)를 별목하도록 한 것도 재목을 출원한 사례이다.¹⁰⁹⁾ 이밖에 예산향교 교장 이항표가 마을사람 40여명을 역부로 보내준 것¹¹⁰⁾은 노동력을 부조한 것이다. 돈과 알곡 등의 영조부조를 거두어 오는 일은 수합유사가 승려 회운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했다.¹¹¹⁾ 분강서원 창원시 영조부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암의 내외 자손들이 낸 곡식과 돈으로 추정된다.

분강서원의 공역에는 민간 장인과 승장이 함께 참여했으나 큰 기여를 한 것은 용수사, 성천사 등 예산현 관내 사찰과 도곡재사에 속한 승장(僧匠)들이었다. 서원 건립시 노동력은 주로 예산현 관내 각동(各洞)에서 온 동민과 주변 사찰의 승려들이 제공했다. 공역에 종사한 역부로는 예산현 각동의 동민과 승려를 비롯 유력가에서 영조부조 형식으로 보낸 종(奴) 그리고 향중(鄉中)과 서원에 속한 역노(役奴)들이었다.

분강서원 창원시 경상도관찰사를 비롯 예산현·안동부 등 지역 관아와 향청(鄉廳) 그리고 주변 향교·서원 등에서도 영조부조로 돈과 곡식, 종이류 등을 지원했다. 멀리 떨어진 동래향교에서도 돈3관을 보내주는 등 인근의 향교·서원에서 분강서원의 창원을 적극 지원했다. 영조부조를 통해 건축비와 곡물·종이류 등은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었으나 재목의 부족과 역부 동원의 어려움은 조영조직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부족한 재목은 예산현 관내 각동에 통문을 보내 구했으며, 역부는 각동의 인정(人丁) 및 승려 그리고 서원·향교·향중(鄉中)의 역노(役奴)를 지원받아 해결했다.

4.2 조영조직 및 감역(監役)

분강서원의 창원을 주도한 조영조직은 1699년 6월 2일의 문중회의에서 농암의 정사(후에 서원)를 짓기로 결정한 후 곧바로 구성되었다.¹¹²⁾ 초기 조영조직의 임원은 모두 농암의 친손이었으며, 조직은 3명의 도감(都監) 밑에 3명의 유사를 두고 그 아래에 번와·재목·수합·철물 등 분야별 유사를 배치한 형태였다. 창원을 책임진 도감에 이장희·이명하·이백업(3명), 제반 행정업

98) ...自官家 皮牟二石. 粟. 『창원일기』, 1699. 윤7. 28
 99) ...花倅洪公得禹○(氏) 以關東伯遞歸時 送助孔方十貫 其尊嚮之誠可謝. 『창원일기』, 1700. 2. 24
 100) 울이 가늘고 고운 무명
 101) ...方伯遞歸時 細木十二疋 題給於咸昌... 『창원일기』, 1701. 3. 5
 102) ...平海校院及鄉廳送錢五貫 自官家白米七斗 麴生一同惠. 『창원일기』, 1702. 9. 28
 103) ①奉化鄉校 送錢二貫 麴生二圓 安東鏡光書院 送錢三貫. 『창원일기』, 1701. 9. 미상, ②...東萊鄉校 專伴送錢三貫. 『창원일기』, 1701. 10. 23
 104) (예산향교)校長李恒標○(氏) 送白紙一束 壯紙五張 陶院送助大米一石 小米一石 麴生三竹 鄉廳送助粟一石 買得英陽居奴丙戌 價則八兩也 因李東直卽爲經斜 陶易兩院 祭享時祝文紙 并十五張送來. 『창원일기』, 1702. 월일자미상
 105) ...景山書院錢文一兩 白紙一束來 英山書院錢文二兩 白米三斗來. 『창원일기』, 1702. 9. 17
 106) ...平海校院 及鄉廳送錢五貫 ○自官家 白米七斗 麴生一同惠助... 『창원일기』, 1702. 9. 28
 107) ...伊山書院送錢一兩... 『창원일기』, 1702. 10. 4
 108) ...烏川金瑋○(氏)金泰國○(氏)送役奴 金湊○(氏)送役奴四名. 『창원일기』, 1699. 8. 30, 鄉中役奴 逐日來到. 『창원일기』, 1702. 6. 26, ...以兩院奴. 在近者立役事. 定議分付焉. 『창원일기』, 1702. 7. 6

109) 각주 27 참조
 110) 각주 77의 ①참조
 111) 각주 89, 90 참조
 112) 각주 10, 12 참조

무를 맡은 것으로 보이는 유사에 이동필·이기상·이성장(3명)을 선임했다. 분야별 유사로는 번와 유사에 이어 필·이복·이기백·이필영·이감 등 5명, 재목유사에 이몽필·이명필·이숙·이성일·이중영·이언영·이문·이조·이우영·이성중·이성대·이기·이여백 등 13명을 선임했다. 이밖에 영조부조를 받는 수합유사에 이원식, 철물 유사에 이문과 윤상시를 두었다.¹¹³⁾

창원 초반의 조영조직은 무엇보다 정사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한편 문중원(친손)은 물론 외손 및 영천이씨 지파(支派)에 통문으로 정사 건립 계획을¹¹⁴⁾ 알리고 영조부조를 받는 것에 집중했다. 한편으로 예안현 관아와 경상도 감영에 정사(후에 서원) 건립 청원서를 제출하고 재가를 받는 등의 행정 절차도 밟아 나갔다. 분야별 유사들은 역부들을 데리고 정사 건립에 필요한 재목을 벌목하거나 기와를 구울 준비를 했다. 창원에 본격 착수한 후에는 건축 장인과 역부를 동원하여 공역을 진행시키고, 감역(監役)했다.

창원 초반에는 정사를 건립하기로 했던 공역이 향중 사림의 결의로 1700년 9월 29일부터 농암의 서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지역 명망가인 이두로(李斗老)와 손경증(孫景曾)¹¹⁵⁾이 조영조직의 새 도감에 선임되었다. 새 도감은 부족한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 10월 10일에 농암의 내외손은 물론 도내 향교·서원 그리고 주변 각동에 통문을 보내 서원 건립에 필요한 영조부조와 역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예안현 향중조직을 통해 각동에 역부(役夫)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보냈던 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암 이선생을 위해 자손들이 影堂을 짓고 서원을 세우고자 하는데. ...이 통문에 따라 한목소리로 응해 기한 내 이루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동(洞)은 능력을 감안하여 공역을 도울 수 있는 역부(役夫)를 보내주기 바랍니다¹¹⁶⁾....’

113) 각주 12, <표 1> 참조

114) “...조상을 위한 정성이 내파(內波)인가 외파(外派)인가에 따라 차이가 없고, 선조를 존중하는 마음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다르지 않다...에일당 언덕에 정사(精舍)를 세워 옛 영당(影堂) 제도를 본받고자 한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 미루며 시작하지 못했다...외파에 알리니...한 마음으로 호응하여 재물과 인력을 출연해서 조상위한 일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이양직 등 60여명이 서명하고 통문 일곱 통을 베껴서 여러 고을에 발송했다. 『창원일기』, 1699. 7. 11

115) ...定出成造都監李斗老 孫景曾. 『창원일기』, 1700. 9. 29

116) 兩都監來 處置凡事後 發文鄉中各洞 其文曰 鄉中士林 爲我 龔巖李先生 仍其子孫所營之影堂 圖建書院 以爲共尊之地 惟我同志之人 孰不聞風而興起也哉 僉尊已見士林文字 而細悉其通告之意矣 茲敢轉諭于各洞 伏願僉尊 一依士林通文 同聲相應 期於必成 云云. 『창원일기』, 1700. 10. 10

이처럼 개편된 조영조직의 도감이 다른 일에 우선하여 각동에 통문을 보내 역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역부의 동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역에 많은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부의 동원은 물론 건축비의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영조직에서는 도내 각처에 통문을 보내 영조부조를 요청하는 등 부족한 건축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진술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도감 이두로가 사임하여 부득이 1701년 2월 29일에 박중채(朴重采)를 후임 도감으로 선출했다. 이날 분강서원의 원장격인 수임(首任)에 남천우(南天祐)가 추천을 받으면서¹¹⁷⁾ 조영조직은 다시 수임 1명, 성조도감 2인 및 각분야 유사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창원일기에 유사들의 교체 명단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역 업무를 맡은 유사들은 대개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1701년 4월 24일에 도산서원 원장의 제안으로 예안향교 교장 김주·분강서원 재임 김태국·이수약이 부족한 건축비 문제 등 현안을 상의하고, 도내 각처에 통문을 보내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계서원과 창해서원 및 영양향교에 통문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¹¹⁸⁾ 이를 통해 창원시 건축비 조달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창원일기에 기록된 도감 박중채가 쓴 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현(縣)의 士友들이 공역을 시작하여 에일당 서쪽에 사당을 지은 지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 완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감히 알려드리니 능력껏 도와주어 큰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¹¹⁹⁾’

위 통문의 내용에 ‘사당을 짓고 수년이 지났음에도 완공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 건축비의 부족과 역부 등의 부족으로 창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영조직의 도감과 예안현 관내 도산서원·예안향교가 중심이 되어 도내 서원과 향교 등에 통문을 보내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1701년 10월 23일에 도감 외에 별도감(別都監)에 이

117) 창원일기 1701년 4월 8일에 ‘首任(남천우)이 公務를 처리하고 서원 옆 에일당에 묵었다’는 것으로 보아 남천우가 분강서원의 수임직을 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118) ...會于陶院 與校長金湊及院齋任金泰國李守約相議 發文道內 紙地則取辦於陶院也 文字則朴重采(氏)起草袖來也 寫通三度 而二度則使院伴 傳于三溪 及昌海兩院... 『창원일기』, 1701. 4. 24

119) 其文曰...龔巖李先生 碩德懿行 可以爲百世之師 而遠邇之所 共欽慕者也 汾川一曲 喬木宛然 遺塵剩馥 久而不泯 即其杖屨之所 合有崇奉之舉 而遷就至今 爲吾黨之嗟惜者 積有年所矣 迺者一縣士友 相與合謀 始建 廟宇於愛日堂之西 以爲揭虔之地 而事鉅力綿 數年未就 倘擬僉君子同聲顧助 將無訖功之日 茲敢奉告. 『창원일기』, 1701. 4. 24

여필과 이수사를 새로 선출하고 감역을 맡긴 것은 건축공정에 맞추어 조영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¹²⁰⁾. 그동안 도감으로 활동한 박중채가 예안향교 교장이 되면서 1702년 윤6월 19일 윤상언이 새 도감에 선출되었다.¹²¹⁾

감역의 경우 일이 많을 때는 매일 2명의 감역인이 역소(役所)에 자며 공역을 감독했다.¹²²⁾ 평소에도 2명의 도감이 서로 돌아가며 역소에 나와 감역 및 관련 업무를 보았다. 이처럼 역소(成造所)의 감역은 분강서원의 수임(首任)을 비롯 (성조)도감(2인), 별도감(2인)이 주로 맡았으나 이들 외에 예안향교 교장 김주와 분강서원 장의(掌儀) 김태국 등도 감역에 적극 참여했다.¹²³⁾ 이밖에 도산서원, 역동서원 등의 재임(齎任)과 향중 사람들도 수시로 역소에 나와 감역 업무를 지원했다.

전술한바와 같이 창원 초반에는 도감과 유사에 농암의 친손들이 선임되었으나 사람의 공론에 따라 건립중인 정사(영당)를 서원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하면서 외부 명망가를 도감과 별도감에 선임하며 조영조직을 공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조영조직이 공적 성격으로 개편된 후 예안현 관내 각동(各洞) 및 도내(道內) 향교·서원 등 각처에 지원을 요청하는 통문을 보내는 등 건축비 확보 및 역부 동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감역 업무는 주로 분강서원의 수임과 도감, 별도감이 맡아보았으나 지역 사람과 향교·서원의 임원 등도 수시로 역소(役所)에 나와서 감역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연구는 분강서원 건립 당시 작성된 『창원일기』를 통해 조선 후기 지방 서원의 창원과정 및 건축생산과 조영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강서원의 창원에는 약3년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초기에는 농암의 친손들이 개최한 문중회의(1699. 6. 2.)의 결정에 따라 정사(影堂성격)로 시작했으나 도중에 도선서원이 중심이 된 지역 사람의 결정에 따라 농암을 주벽으로 모신 서원으로 완공되었다. 분강서원의 창원과 조영은 농암의 내외자손, 유력한 타성

문중 및 도내 향교·서원·관아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역부로 참여한 지역 동민(洞民)의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

둘째, 창원에 사용된 재목은 낙동강 상류에 있는 산에서 벌목하거나 관내 각동에서 영조부조 형식으로 구매 조달했다. 기와는 역소(役所) 인근에 가마를 만들어 직접 구워 사용했으며, 못 등 건축 철물은 철을 구입한 후 역소에 야장(冶匠)을 불러 제작했다. 자재의 수급은 18세기 초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랐다.

셋째, 분강서원의 조영에는 민간장인과 승려장인이 목수·석수·양벽장·와장·개장(蓋匠)·야장(冶匠)으로 참여했다. 목수의 경우 민간장인이 제향공간에 해당하는 사당(祠堂)·신문(神門)·전사청(典祀廳) 등 소규모 건물을 맡고, 승장(僧匠)이 규모가 큰 강당(講堂)을 맡아 건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18세기 초 예안현 지역의 승려 장인이 민간 장인에 비해 건축기술과 기량 면에서 더 우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장인에게 일정한 수공(手功)을 지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민간인 목수 입남에게 수공으로 돈22냥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목수·석수·와장·양벽장 등에게도 소정의 수공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역부는 향촌을 지배했던 향중(鄉中) 사람을 통해 각동에 필요한 역부를 할당하고 동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켰다. 이 같은 역부의 동원은 문중원들이 정사를 건립하던 초기에 비해 향중 사람이 서원 건립을 주도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각처에서 영조부조한 물품에는 돈과 곡식·누룩·종이·재목 등이 있고, 이밖에 역노(役奴) 등을 보내주는 방식의 노동력 부조도 있었다. 영조부조는 수합 유사(有司)가 승려의 도움을 받아 모집했다. 영조부조는 농암의 내외 자손들이 낸 곡식과 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지역 관아와 향청, 향중 및 원근 향교·서원 등도 상당한 돈과 곡식, 종이류 등을 지원했다. 영조부조의 사용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역소의 운영비와 건축자재 구입비, 장인의 수공(手功)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알곡 등은 주로 장인과 역부 및 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건축자재 구입비, 장인의 수공(手功) 등으로도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농암 이현보의 친손이 중심이 된 초기의 조영조직은 도감 3명, 유사(有司) 3명 및 번와(燔瓦) 유사, 재목(材木) 유사, 수합(收合) 유사, 철물(鐵物) 유사로 구성되었다. 그 후 지역 사람(士林)이 건립 중인 정사(精舍)를 서원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하면서 성조도감(2인)과 별도감(2인)에 예안현의 향중 명망가를 선임

120) ...定出別都監 李汝弼李洙使之董役... 『창원일기』, 1701. 10. 23

121) ...都監一員 定出尹商彦○(氏). 『창원일기』, 1702. 윤6. 19

122) ...每日兩員分番留宿監役焉. 『창원일기』, 1702. 윤6. 28

123) ...校長金湊 掌議金泰國 早朝來到監役校長金湊 掌議金泰國 早朝來到監役. 『창원일기』, 1701. 4. 27

20 논문

하는 등 조영조직의 구성에 사림의 공론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조영조직은 지역 사림 중심의 공적 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바뀐 조영조직은 도내 향교·서원 및 지역 각 동(洞)에 통문을 보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활동 폭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분강서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창원시 감역(監役)과 공무(公務)는 수임과 도감, 별도감이 맡아 처리했지만 이들 외에도 향중 사림과 향교·서원의 임원 등도 감역 업무를 적극 지원했다.

참고문헌

1. 『創院日記』, 한국학진흥원, 유교넷
2. 『조선시대 서원일기 원본』, 한국국학진흥원, 2007
3. 배창현·전봉희,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안동지역 영당 건립의 성격」,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년 추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97~102쪽
4. 김동욱, 『한국 공장사 연구』, 기문당, 1993,
5.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접수(2020. 1. 8)

게재확정(2019. 2. 4)